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 동 열  
발행처: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중앙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el: (02)783-0071~2. FAX: (02)783-0073

# 기별골프대회 10월2일 티오프

## 야구 10월6일 · 용마의 밤 12월20일 대향연

### 본부회장단 회의 하반기 6대 행사 확정

본부동창회 올 하반기 빅 이벤트인 제5회 기별대향 골프대회는 오는 10월 2일, 제34회 기별대향 야구대회는 10월 6일, 용마의 밤 축제는 12월 20일 각각 막을 올린다.

### 올 3차 정기산행 9월29일 주왕산 11월10일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은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열린 올해 3차 회장단회의를 주재, 본부동창회 '2002년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안'을 확정시켰다(행사별 일정 별도 참조).  
8·8재보선 당선 국회의원과 6·13지방선거 당선 시의원 및 지자체 단체장, 시·도교육위원 당선 동문 등 초청 축하연을 겸한 이날 회의는 △초청 동문 소개

및 인사 △상반기 직능별 행사 결과 보고 △하반기 주요행사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사회: 한병조 사무국장·13회).  
이날 초청된 동문은 부산시 교육위원 김선동(10회) 및 경남도 교육위원 이광희 동문(30회)과 김향은 경남고 교장(13회), 국회의원인 김병호(15회) 서병수 동문(25회), 부산시의원인 조길우 이종철(이상 16회) 박기욱(23회) 장창조 동문(27회), 지자체 단체장



박동열 본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의 주제로 올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는 회장단 회의.

인 이인준(22회·부산 중구청장) 박맹우(25회·울산광역시시장) 하영제 동문(27회·남해군수)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김병호 조길우 이인준 서병수 박맹우 하영제 이광희 동문 등은 공무관계로 불참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에는 기별대향 골프 및 야구대회와 용마의 밤 축제 등 굵직한 행사가 많다"며 "이를 위해 회장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고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활발히 전개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부회장은 정행권 한동대(이상 9회) 강진평 오강욱(이상 10회) 오완수(11회) 한병조(13회) 박병선 이종민(이상 14회) 송규정 진병일(이상 16회) 석무관(19회) 박재상 정상수(이상 22회) 김진철(25회) 윤성덕 최거훈(이상 30회) 박명진(33회) 류세호(34회) 장인화 동문(35회) 등, 감사는 김태우 동문(27회), 사무국은 한 국장과 김병수 총무부장(22회)이 각각 참석했다.

### 세차게 몰아치는 폭우 속 삼술회, 가족동반 단합회

삼술회(제33회동기회)는 지난 8월 15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밤나무집에서 1년에 한 번 펼쳐지는 가족동반 여름단합회를 열었다.  
백수현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탓인지 2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러나 반갑고 즐거운 마음이 넘쳐 시종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배종현 동문이 부인과 함께 참석, '신입회원' 등록을 해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축하주가 오는 바람에 분위기가 똘똘 뜨는 기분이었다.


행사명	일자	장소	참고
용마산행대회	9월 29일	주왕산	△ 오전 7시 50분 출발 △ 용마산악회 주관 올 3차 정기산행
기별골프대회	10월 2일	동부산 C.C.	△ 단체전 △ 개인전 △ 시니어부 개인전
기별야구대회 (결승전)	10월 6일 (11월 2일)	모교야구장 (경남고 야구장)	△ 대표자회의의 9월 하순 △ 입장식 오전 10시 △ 장타대회·연합팀 대전·기별단합회식
재경정기총회	11월 10일	올림픽공원 3체육관	△ 1부 기념식· 2부 여흥
본부이사회	11월 15일	코모도호텔 (예정)	△ 용마의 밤 축제 계획안 확정 △ 34회 기별야구대회 결산보고
용마장학회 2차 이사회	11월 20일	대어초밥 (예정)	△ 2003년 예산안 심의 △ 2002년 중간결산보고 심의
용마의 밤 축제	12월 20일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 1부 기념행사 △ 2부 단합회·쇼 관람

## 재경 용마테니스대회 9월15일 구파발 그린코트

재경동창회(회장 이상택·13회) 주최 2002년 용마테니스대회가 오는 9월 15일 구파발 그린테니스 코트에서 열린다.  
제28회재경동기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 운영에 대한 문의는 용마테니스회 우성하 총무(20회·02-2605-8692)와 제28회재경동기회 김외정 총무(02-961-2630)에게 하면 된다.

## GOLF

# 동창회장배쟁달 제5회 용마골프대회



- 일 시 / 2002년 10월 2일(수)  
오전 8시 첫 Tee Off (예정시간)
- 장 소 / 동부산 C.C.
- 대회구분 / 1)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  
2) 개인전 (뉴페리어 방식)  
3) 시니어부
- 참가신청 / 본부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
- 신청마감 / 2002년 9월 12일(목) 17:00까지

주 최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이번 한·일월드컵은 우리가 축구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을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유산과 저력을 세계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월드컵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특히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가 남긴 몇 가지 '교훈'을 우리 경남중고동창회와 용마가족들은 조직 활성화·화합·결속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잠재력이 강한 우리 동창회의 역동화 촉진, 응집력의 지속화, 각종 행사의 문화적 축제화, 동창회 발전을 위한 발상과 인식의 새로운 전환, 우리 동창회의 위상 높이기 등에 기꺼이 동참해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위상 높이기 에 역량 결집

1982년 월드컵을 개최한 스페인의 경우 월드컵의 결실을 지속적으로 거둔 결과 내전으로 낙후된 나라에서 질서있고 안정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관광대국과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우리도 이 역량을 사회 모든 분야뿐 아니라 동창회 조직에서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민족이 21세기를 이끄는 지도적 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잠재력 강한 경남중고동창회를

시평

김영환

제20회 송실대 기독교대학원장



월드컵과 '일류동창회'

역동화시켜야 한다. 이번 월드컵은 우리 용마가족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둘째, 월드컵 응원을 계기로 단합된 정신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었고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나'를 '우리'로 만들었다. 건국 이후 국민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과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 지역적 분열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응원전에서는 동서가 없었고 계층의 상하나 남녀노소도 구분되지 않았다. 심지어 세계화된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560만 해외동포들도 월드컵 덕분에 잊었던 조국애와 자부심을 되찾았다고 한다. 월드컵 세대의 젊은 파워는 미래 한

국, 무엇보다도 통일로 나아가는 잠재력이다.

셋째, 월드컵 기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축제의 문화를 창의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길거리 응원을 가능케 했던 10~20대 젊은층, 월드컵 시대는 태극기 두건과 치마, 망토와 보디 페인팅을 선보이면서 붉은 색은 좌의이라는 레드 콤플렉스로부터 우리 국민을 해방시키는 데 일조했다. 남녀노소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응원 방식은 월드컵을 민족 축제로 승화시켰다. 우리 동창회 속의 젊은 세대층(젊은 동기회)들이 이제 앞장설 때이다.

넷째, 히딩크형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세대와 계층과 지역

과 남녀의 차이를 넘어서서 분명한 비전과 소신, 실력 우선의 합리적 선택, 기초를 중시하는 전략 등이 우리 사회 각 부문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운영, 사회운영, 기업운영, 동창회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에 세계에 각인된 한국 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화된 한국을 심어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 경남중고동창회 브랜드(위상)를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젊은 동기회 적극 참여 절실

이번에 세계 최고로 확인된 우리 디지털·인터넷 기술의 위력은 21세기 한국 정보기술의 역량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에 나타난 국민적 에너지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력 업그레이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동창회도 하나씩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1960년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인지도와 사회역량을 결집시켜 일본을 다시 선진국 대열에 끌어올린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일류 선진국으로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경남중고동창회가 '일류동창회'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 용마가족들이 새로운 사고로 결집하여 새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조대제(7회) 국제로타리 3660지구 총재 취임 유홍중(11회) 부산AG 한국선수단장 발탁

허연욱(23회) 남자선수 감독



조대제 본부고문(7회·용마장학회 이사장·위)은 지난 7월 1일 국제로타리 3660지구 2002-03 새 총재에 취임했다. 현재 협성개발(주) 대표이사인 조 고문은 부산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 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했다. 본부 사무국장을 다년간 맡아 조직활성화에 헌신했고, 동기회 회장·본부 이사·부회장·회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에는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을 비롯, 임원 다수와 최득호 전 사무국장(11회), 한병조 현 사무국장(13회), 김병수 사무국 총무부장(22회)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유홍중 동문(11회·가운데)은 오는 9월 2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선수단 단장에 선임됐다. 또 국군체육부대장인 허연욱 동문(23회·육군준장)은 남자선수 감독에 뽑혔다.

유 동문은 현재 대한올림픽위원회 방송위원장·대한양궁협회장·BNG스틸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동문은 현대자동차서비스(주) 사장·현대할부금융(주) 부회장·삼미특수강(주) 회장·재경동창회 수석감사 등을 지냈다.

허 동문은 육사(29기)를 졸업한 후 일선부대 연대장 등을 거쳐 국군체육부대장을 맡고 있다.

송규정(16회) 부산시제조협회 회장



송규정 동문(16회·사진)은 최근 부산시제조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본부동창회 부회장을 다년간 맡고 있는 송 동문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철강업계에 투신, 윈스틸을 창립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운대 달맞이교에 있는 로얄킹덤호텔도 경영하고 있다.

조용하고 후덕한 성품의 송 동문은 "제조협회를 흑자단체로 이끌어 나가고 오는 부산AG에서 산하 제조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호(15회)·서병수(25회) 8·8재보선 당선... 국회 진출

클로즈업



8·8재보선에서 김병호(15회·위)·서병수 동문(25회)이 당선, 국회에 진출했다.

김병호 동문은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진갑에서 출마,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국제신문 기사를 거쳐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장과 동아방송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판단력이 빠른 김 동문은 후덕한 성품으로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

서병수 동문은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 해운대·기장갑에 출마, 당선됐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나온 서 동문은 동부산대 겸임교수와 해운대구청장 등을 지냈다. 논리정연하고 달변인 서 동문은 침착한 가운데 인정이 깊은 용마로 평가받고 있다.

제 11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문 郭正出 徐根照 安康泰 吳完洙 柳興洙 회장 金炳基 부회장 梁雄錫 廉漢鎬

李明旭 崔亨起 洪起煥 이사 甘錦讚 姜龍大 金達經 金洙坤 金鏞正 金原炯 金寅燮 金重河

金煥守 金恒坤 金孝珉 金南顯 金盧英 金潘一 金泰述 金鍾柱 金申圭 金申大 金申允 金申業 金申仁 金鍾

呂運吉 吳李祥 李相泰 李相動 李相珍 李張英 李鄭光 曹楊雄 曹千鈞 崔得榮 崔榮圭 崔榮春 洛勤喆 泰動珍 權權雄 鈞準鎬 圭春

감사 崔永守 총무이사 金東基 본부동창회 부회장 朴燾太 安康泰 吳完洙 柳興鎬

본부동창회 이사 金炳基 梁雄錫 廉漢鎬 李亨明 崔亨旭 재경 제11회동기회 회장 朴盛春

### “용마가족 취직난 해결 위해 본부 HP에 ‘구인·구직’ 신설을” 경총회 단합회... 본부에 3개 현안 건의

본부동창회 총무협의회(약칭 경총회·慶總會)는 지난 7월 26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남포동 삼송초밥에서 여름단합회를 열었다. 이창대 회장(12회)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정기총회 간사장(24회)의 사회로 진행, 경총회 활성화 방안과 본부동창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 적극 지원 등을 논의했고 본부에 대해 '3개 현안'을 건의했다. 경총회는 이날 본부회장에게 △

본부 홈페이지에 '구직'·'구인' 사이트를 신설해 동문들의 취직난을 극복케 하고 △본부회장이 주재하는 동기회 그룹별 간담회 개최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본부의 각종 행사를 검토, 구조적 변화를 시도할 것 등 3개항을 건의했다. 한병조 본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집행부로 하여금 전향적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산우회 산꾼들의 건강한 모습을 '찰라' 추억속에...

### 천성산 및 계곡서 피서 한마당

#### 이철산우회 142차 산행 냉막걸리 냉소주 없어 점심밥 잘 안 넘어가

제27회동기회 이철산우회는 지난 8월 18일 경남 양산시 근교 천성산~내원사 계곡에서 제142차 산행을 했다. 강봉호 회장을 비롯한 산꾼 10명은 성불암~집복재~노전암~집복재 기슭(점심식사)~계곡다

기 코스에서 4시간여 '놀고 쉬는' 산행을 했다. 지한표 막걸리와 태영표 소주가 빠진 점심식사였으나 병호표 오징어주물럭과 상훈표 수박이 허전함을 다소 달래주었다. 특히 도시락 2개를 준비해 온 허 한 동문은 그 중 1개로 뺨질이(?) 친구(영건 동문)의 배를 채워주었다. 일행은 해운대에서 뒤풀이를 즐긴 후 해산했다.

#### 봉래산서 부산 절경 심취 삼삼산우회, 가족동반 산행

삼삼산우회(제33회동기회)는 지난 9월 1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봉래산 산행대회를 펼쳤다. 강주대 산우회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에는 최웅남, 김범영 동문이 부부동반한 것을 비롯 17명이 참석했다. 산행은 신선동을 들머리로 했고

정상을 밟은 후 동삼동 중리쪽으로 내려와 절경인 해안산책로를 밟으며 천혜의 풍광에 심취했다. 일행은 앞서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수박만한 메론(창근 동문 제공)을 나눠 먹으며 가덕도를 비롯한 다대포 앞섬들은 물론 송학산 구봉산 백양산 금정산 해운대 장산 남향 북향 오륙도 등이 환눈에 들어차자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 40~60대 바다·계곡서 “낭만에 대하여”

꿈과 낭만과 사랑과 희망으로 아우러진 부산의 여름바다와 계곡을 40, 50, 60대 세 동기회가 '여름캠프' 축제로 수놓았다.

### 경부대항 노래자랑·해산물 먹거리 만끽

#### 제16회 송정여름캠프

'오이소! 하이소! 노이소!'를 단골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16회동기회는 지난 7월 26~2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민박도가집에서 '2002송정여름캠프'를 펼쳤다. 예정보다 하루 더 늘린 이번 캠프는 변용현 단장을 비롯한 운영단의 노고로 즐거움이 두배로 커졌다. 이채연 동기회장을 비롯한 60여명의 동문·가족들은 축제 첫날인 26일 저녁 경부천선노래대항으로 전야제의 막을 올렸다. 이날 그랑프리는 서울의 남원탁 동문이 차지했다. 올해도 '송정피서'에 참가한 동

문·가족들은 바둑 대국을 비롯한 실내 오락과 지하수 등물애다 시래기해장국·상추쌈·전복·소

라·고래고기·멍기·해삼·생멸치찌집·장어구이와 도다리 등 각종 활어회로 포식(?)을 했다. 이채연 회장과 운영식 직전회장을 위시해 전종식, 서울의 남원탁 변용현 신은조 천 경 최현우 하 정춘, 대구의 노원소 동문 등이 협찬해 축제가 더욱 활기찼다.



제25회 용마가족들이 가인계곡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기 위해 등산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염소불고기+더덕주로 '심야의 앙상블' 연출

#### 제25회 계곡캠프

제25회동기회는 지난 8월 17~18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계곡에서 여름캠프를 즐겼다. 제영성 회장이 리드한 이번 캠프에는 부산과 경남의 동문·가족 40여 명이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첫날인 18일 저녁 전야제는 염소불고기와 더덕주가 궁합을 이룬 가운데 '심야의 앙상블'을 연출했다. 국회의원인 박종용 동문이 시골길을 물어 물어 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또 한편의 잔칫상이 곁들여졌다.

뒷날 숙취에 찌든 동문들은 각각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가파른 산을 오른다고 죽을 고생을 했다.



태종대 자갈마당에서 제28회 용마가족들이 피서를 겸한 1박2일 코스 단합회를 열고 있다.

### 자갈마당서 회포 풀고 고3자녀 합격 빌기도

#### 제28회 태종대여름캠프

제28회동기회는 지난 7월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영도구 태종대 자갈마당에서 가족동반 '2002여름캠프'를 즐겼다. 김만수 회장이 주재한 이번 축제는 동문·가족 40여 명이 참석, 그 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다. 한

편 대구에서 윤일회 동문이 참석해 그곳 용마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들려주었다. 일행은 파도소리를 벗삼아 각종 활어회와 전복·소라 등 패류로 꾸며진 전야제 잔칫상을 받고 흥분을 다스리지 못했다. 서로 "건강과 행운을 빈다"며 소줏잔을 나누었고 노래자랑도

벌여 '환상의 자갈마당'을 연출했다. 이날 동문·가족들은 '고3 부모들'이 대거 불참함에 따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모두들 "자녀들이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 제12회동기회 임원 명단

### 졸업40주년 기념행사

•일자: 2002년 9월 28(토)~29(일) / 장소: 경주 조선온천관광호텔  
•동기생께서는 참석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051)243-8385 / (02)529-8037 (주)금산

#### [고문]

姜洙憲 808-1331  
權延相 506-8700  
金光一 507-0111  
金喆基 949-7001  
文正秀 363-0312  
朴保國 265-8611  
安永圭 [055]242-7582  
李龍彥 240-2913  
趙哲元 242-2244  
[집행부]  
회장 南基鎔 [055]346-1001  
수석부회장 張東錫 620-6414

#### 부회장

權翼 332-2934  
金準鐵 463-6551  
朴鍾鼎 757-6886  
嚴泰燮 200-7200  
총무부회장 李昌大 243-8385  
감사 千九星 465-1661  
[재경동기회]  
회장 尹學根 [02]529-8037  
수석부회장 權奉憲 [02]533-3370  
총무부회장

金英吉 011-227-7064  
부회장 金永錄 [02]532-8755  
金眞豪 [02]2232-2342  
卞在鏞 [02]924-4643  
車敏道 [031]708-6411  
감사 林成森 [02]760-2600  
[지역·직능]  
•제주지역동창회 회장 金斗數 [064]799-7780  
•대구·경북지역동기회 회장 金鍾源 [053]850-3613

•경남지역동기회 회장 金章郁 [055]637-3930  
•울산지역동기회 회장 崔柄俊 [052]298-0089  
•중·동·서·영도·부산진지역 회장 金準鐵 총무 姜昌秀  
•사상·사하·강서지역 회장 嚴泰燮 총무 朴文基  
•남·수영·해운대·기장지역 회장 趙哲元 총무 禹清夏  
•북·동래·금정·연제·양산지역 회장 金富煥 총무 李春相  
•경문회 회장 金容鎔 총무 姜昌秀  
•경수회

회장 宋世文 총무 吳壽奉  
•용마테니스회 회장 張東錫 총무 鄭棟植  
•용마골프회 : 회장 姜洙憲 부회장 王漢均 총무 鄭榮喆  
•용마기우회 : 회장 金喆基 부회장 金善一 총무 鄭鐵泰  
•산우회 : 회장 南基鎔 산행대장 金佑星 총무 李昌大  
[이사] 吉哲鍾 701-6369  
金富生 464-8929  
金石用 204-3280  
金善一 245-5824  
金聖贊 622-6040

金龍瑄 330-7136  
金容鎔 741-8220  
金宰旭 611-3566  
金鍾聲 247-2811  
金鍾錄 271-2277  
金진갑 414-8812  
金春光 208-9445  
金顯燦 895-3031  
朴文基 266-0975  
徐泰相 253-1226  
宋世文 342-7732  
安相直 245-6505  
吳世正 625-6706  
玉桂漢 [055] 752-5733  
王漢均 291-5594  
李守永 556-6677  
林正明 512-0311  
田永福 336-4227  
田判在 623-2808  
鄭鐵守 862-7747  
鄭大植 862-9314  
鄭棟植 [055]362-4145  
鄭榮喆 243-6445  
鄭鎔仲 647-2555  
崔昞均 245-9558  
卓惠政 291-0025  
河一基 524-0403  
河一民 581-3356  
洪龍河 752-0586

# 300회 산행기념 팔공산 등정

### 일삼회 산꾼들, 대구 동문 초청 받아 '영원한 우정·자랑스런 선배' 되기 다짐

일행은 소숫잔을 높이 들고 "건 강한 일삼회 되기, 영원한 친구 되기, 자랑스런 선배 되기"를 다짐했다.

대구 팔공산을 등정한 일삼회 산꾼들이 단합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산꾼들은 대구의 조 동문이 마련한 식당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제13회동기회 일삼산우회는 지난 7월 14일 대구 근교 팔공산에서 제300회 산행기념 등산대회를 대구 동문들의 초청으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제병민 동문의 본부동창회 용마산악회장 선임 측하를 겸해 열렸다. 산행은 서울의 김정균 동문을 비롯,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의 조성호 동문(대구 효성대 교수)이 안내하고 공한국 회장이 주재해 휴게소~오도개~장군봉~부처바위~염불암~동화사 코스에서 펼쳐졌다. 가랑비 속 5시간여 산행에도 '무사고 산행'으로 마무리를 한

# 지옥 같은 가시덤불 헤치고

## 제21회 낙남정간 9구간 종주기

우리 이일산우회 낙남정간 종주팀은 지난 8월 18일 제9구간 끊어타기를 감행했다. 이날 부산의 김익수 동문 등 7명(최금구 동문 부인 이순자씨 포함)과 김해의 강호철 동문, 마산의 김현기 동문 등 3명 등 모두 11명이 지옥 같은 가시덤불을 극복했다.

## 발산재~배치고개 끊어타기 배경

사상 유례없는 게릴라성 폭우가 11일 동안이나 전국을 강타하여 습한 수재민을 낳았다.

특히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의 위력은 실로 엄청났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집중호우 때문에 낙남정간 8구간 끊어타기를 1주간 연기했다. 8구간 끊어타기가

다. 그런데 뜻밖에도 손원조 동문이 처음 출정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사실 우리 회원들은 이제 친구 이상의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있어 말이 필요없을 지경이다. 그동안 힘들게 종주를 하면서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뉘기 때문일 것이다. 종주를 하면서 산 타기를 통해 친구를 이해하고 아끼는 자세를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을 했다. "낙남정간을 마치면 우리 회원들은 백두대간을 탈 것이라고..."

## 백두대간 도전의지 굳혀

땅에 붙박고 사는 산꾼으로서 마땅히 도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산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일일 것이다. 그

## 가을 시동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 내 등의 짐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람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만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 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물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시는 재경 경팔산우회에서 초가을을 맞은 용마가족들에게 선사한 것이다.



예정보다 짧게 끝나 지리산 입산이 금지되는 11월 중순까지 낙남정간 종주가 무사히 마쳐질지 걱정이 커졌다. 그러므로 이번 9구간 종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담터재에서 배치고개까지 13.9km는 반드시 끝마쳐야 그나마 한가닥 희망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 대타 기용된 홍일점 인기

우리 산줄기를 종주하면서 물길(水經)과 산길(山經)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일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터잡고 사는 자연환경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의 위대한 힘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우리의 미혹한 자세를 반성도 시켰다.

오늘은 이강남 부부와 조상호·최금구가 빠졌다. 최 동문은 대신 이지매(이순자씨)를 출동(?)시켰

리하여 백두대간을 마치면, 우리 고장을 관통하는 낙동정맥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결집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 종주팀은 발산재(150m)를 출발했다. 이어 오늘 구간 중 제일 높은 깃대봉(520.6m)을 넘었고 벌발들(418.5m)~385봉~남성치~용암산(399.5m)~담터재(195m)~필두봉(416m)~새터재(190m)~탕근재(369m)~신고개(175m)에서 숨을 잠시 고른 후 목적지인 배치고개(175m)까지 가서 발길을 멈췄다. 총도상거리 13.9km를 7시간 30분(휴식 2시간 포함) 걸쳐 주파했다.



신남석  
제21회  
산행대장

# 길 잃어 70분간 정족산 한바퀴 돌아

## 삼공산악회 97차 산행기

삼공산악회(제30회동기회) 제97차 산행대회는 지난 9월 1일 정족산에서 펼쳐졌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과 울주군 웅촌면에 걸쳐 있는 이 산은 술밭처럼 생겼다 해서 '술밭산'이라고도 한다. 곳곳에 태풍 루사가 남긴 후유증을 치유하려는 재기의 손길이 분주해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문장호 회장 등 산꾼 7명은 천성일 산행대장의 뒤를 따라 올라 10시40분 대성암쪽으로 들어섰다. 4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다가

천성2봉-정족산 갈림길 능선에 닿아 문 회장이 꺼낸 햇밤으로 허기를 달랬고, 오후 12시30분 정족산 정상에 올랐다.

물안개 자욱한 정상은 바람이 거셴다. 곧 하산에 들어갔다. 바람을 등진 숲길의 들어앉은 곳에서 점심식사(13:20)를 하고 내원사 계곡 물소리를 떠올리며 내원사 쪽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도대체 이게 웬 일?

## 정상엔 바람 세차 곧 하산

20여일 지속된 태풍과 물난리로 인적이 드문 탓인지 숲 속 길은 잡초와 나뭇가지가 엉켜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 속을 헤치고 약 40분간 걸었을까? 능선에 올라서니 낮익은 길이 나왔다. 아뎐사!

정족산 능선길이다. 그렇다면 1시간 10분 동안 정족산 부근을 한바퀴 돈 셈이다.

비상사태 발생! 내원사쪽 길 찾기에 돌입했으나 아무리 뒤져도 길은 보이지 않는다. 내원사로 가는 길은 울 봄에 올라왔던 길(안적암쪽으로 난 길)로 내려가야 한다.

하는 수 없이 삼덕공원묘지를 지나 술밭산 묘원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물이 길을 막는다.

넘치는 물이라 머뭇거리는데 왕순모가 쓰러진 나무둥치로 길을 만들고, 우리의 수호천사 김우삼은 L군, R군, M군을 업어서 건



유창열  
제30회  
부자분석가

내주는 등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한다. 한마디로 서바이벌 게임임을 하는 기분이었다.

오후 4시, 통도사 길 건너편에 위치한 고반산장에 도착한다.

## '100회 산행' 계획안 논의

고반산장은 계곡 주변에 10여개의 각기 다른 용도의 집들(산장, 찻집, 황토방, 음식점, 노래방)로 아기자기하게 구성된 곳인데 분위기가 좋다.

고반산장에서 참나무에 그을린 삼겹살과 약주를 마시면서 왕순모 주관으로 100회 기념 산행집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미비한 부분은 서로가 보완하기로 의논한다.

오후 6시, 고반산장 승합차편으로 통도사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30분 후 두실역 부근 레스토랑에서 김병기 동기회장을 만나 문장호 산악회장 주관하에 100회 산행 기념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해단식을 치른다.

오늘 산행코스는 영산대 교정에 집결해 장비 점검을 한 후 천성2봉-정족산 갈림길~정족산(700m)~삼덕공원묘원~고반산장까지 총 5시20분 소요됐다.

# “수해입은 친구 정성껏 돕자”

## 제27회 월례회 ... 동기회 발전 방안 제시

“수해로 고통받는 친구를 돕자!” 제27회 동기회 동문들이 최근 우리나라를 휩쓴 제15호 태풍 ‘루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동문돕기운동을 전개해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27회동기회는 지난 8월 29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해암빌딩에서 8월 정례회를 개최, 이번 수해로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김지원 동문 돕기를 결의했다.

김태우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 △흠뻑데이행사 회비 납부 현황 보고 △불참 동문 근황 소개 △동기회 발전안 △마라톤발기대회

설명(박상훈) △수해 당한 김지원 동문 돕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문두찬 직전회장은 이날도 양주 서비스를 빠지지 않아 칭찬(?)을 톡톡히 받았다.

# “올 기별골프·야구대회 26회 우승의 해로 삼자”

## 8월 정례회서 결의

제26회동기회는 지난 8월 26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중앙식당에서 8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김성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졸업 30주년 흠뻑데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결집

된 역량을 동기회 발전의 새로운 좌표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30여 명의 동문들은 다가오는 본부동창회 주최 기별대항골프대회와 기별야구대회에 대비,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펼쳐 우승을 쟁취할 것을 결의했다.

## 수락산 정상에 우정 모락모락

### 재경이철산우회 53차 산행

### 냉동연시 이 시리고

### 막걸리 한 사발 두부·제육보쌈 감칠맛

제27회재경동기회 이철산우회는 지난 8월 18일 수락산에서 제53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김건국 산행대장을 비롯, 김동조 김명기 김성수 김진희 김홍조 이기봉 동문 등 일행은 동막골에서 발품을 팔아 송암사~도안사를 거쳐 하강바위에서부터 능선을 타다가 주봉을 올랐다. 이곳에서 일행은 김홍조 회원의 부인이 정성껏 준비해준 냉동 연시를 하나씩 이빨이 시리도록 먹었다.

철모바위에서의 막걸리는 김진희 동문의 말대로 “참 새들을 위한 시원한 방앗간 먹거리”였다.

수락계곡을 향한 비위능선은 오랜 만에 상체운동을 시켜주는 운동거리가 되었다.

계곡에서의 축락, 수락산역에서의 두부요리와 제육보쌈은 뒷풀이의 별미였다.

수락산을 무대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김홍조 동기의 길 안내는 지난해 창동역에서의 무도장 댄서들을 기억나게 해서 좋았다. 김진희는 마치 다람쥐가 환생한 듯 가벼운 발놀림으로 산을 날았고, 그 특유의 이야기 보따리는 설세없는 웃음을 안겨주었다.

## 계·시·판

### 제8회재경동기회

#### 우승 흥기성·장은아씨 잔디회, 113회 월례대회

제8회재경동기회(회장 강성태)의 골프모임인 잔디회는 지난 8월 1일 안성CC에서 배주원 회장 주재로 제113회 월례회를 열었다.

14명이 4팀으로 나눠 라운딩을 즐긴 이날 대회에서 남자부는 우승 흥기성(80타·-2)·준우승 박재범(87타·이븐)·3등 손세일·니어리스트 노재복·행운상 윤태영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또 여자부는 우승 장은아(93타·-1)·준우승 김정화(94타·-1)·니어리스트 문경희·행운상 정종욱씨가 각각 랭크했다.

#### 도봉산·관악산·수락산 8월 중 차례로 올라

경팔산우회는 지난 8월 31일 동문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영철 회장 주재로 도봉산 등산을 했다. 산꾼들은 앞서 같은 달 24일엔 관악산, 17일엔 수락산을 각각 올랐다.

#### 팔선회 우승 조석제 배주원 '5단승단' 영예

바둑모임 팔선회는 지난 8월 3

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에서 배주원 회장 주재로 8월 정례대국을 열었다.

이날 팔지로 도착한 이종수 동문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친 대국에서 우승은 조석제·준우승은 배주원 동문(5단 승단)이 각각 차지했다.

### 제10회재경동기회

#### 10개 친목회 9월 활동 왕성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 10개 친목회별 9월 중 활동 일정이 밝혀졌다. '9월 학급수업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동수회(회장 박해철)는 9월 14일 오후 1시 명동 자스민기원에서 정례바둑대회를 열었고, 안산 화요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정오 안산중앙역 다릿목추어탕에서 술잔을 나눴으며, 강북화요회(회장 손 정)는 3일 정오 중앙극장 앞 명래옥서 덕담을 주고받았다.

사니조야회(회장 이계창)는 15일 오전 9시30분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만나 고대산을 오르고, 여의도화요회(회장 김상태)는 17일 정오 옛골에서 회포를 풀며, 정우회는 20일 오전 11시30분부터 타워호텔 테니스코트에서 건강을 다진다.

강남화요회(회장 성 은)는 24일 정오 서초갈비촌에서 보신을 하고, 일금회(회장 장성봉)는 27일 오후 6시30분 재회하며, 새브리회



해운대 신시가지 '지구촌'에서 제27회동기회 해운대회 동문들이 7월 정례회를 열고 '무더위와의 한판 승부' 작전을 짜고 있다.

(회장 김영덕)는 28일 오후 6시 전주관에서 건강주를 나눌 예정이다.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30일 정오 자유CC에서 티오프 라운딩을 즐긴다. 7월 수장사는 우승 서진홍·메달리스트 김연수·준우승 변완수·3등 김영덕·롱게스트

이승락·니어리스트 진 강·행운상 최운해 동문.

김창덕 동문이 6월 우승턱으로 금일봉을 회사하자 양화복 동문도 금일봉을 쾌척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연발.

### 제15회동기회

일오기우회(회장 이추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7월 정례대국을 벌였다(김삼용 동문 등 9명 참석).

사하회(회장 권승부)는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하

단동 동백식당에서 44차 정례회를 열고 우정을 나눴다(손부홍 동문 등 14명 참석).

### 제27회동기회

#### 해운대회 월례회 대성황

제27회동기회 해운대회(회장 강

봉호)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지구촌(통갈비의 명가)에서 7월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은 허 한 총무의 신선한 홍보 덕택으로 15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 백구회 골프 우승 이종엽

제27회재경동기회 골프모임인 이철백구회는 지난 7월 18일 경기 광주시 근교 레이크사이드CC에서 16명(4팀)이 참가한 가운데 라운딩을 벌였다.

이날 우승은 이종엽(79타·-2)·메달리스트는 이기봉(83타·-1)·니어리스트 김동조·롱기스트는 윤모성·행운상은 강기철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 이철골프 우승 윤정환

이철골프회(제27회동기회)는 지난 8월 25일 동부산CC에서 8월 정례대회를 열었다.

12명(3개팀)이 라운딩에 들어갔으나 오버 부킹 탓으로 첫 홀부터 약간 밀리다가 9홀에서 드디어 2조 동시 티오프 명령(?)을 받아 생전 처음으로 8명이 함께 티오프를 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날 우승은 윤정환(71타·-1)·메달리스트는 문두찬(85타·+1)·준우승은 김정희 동문이(91타·-3) 각각 차지.

## 제 21회동기회 임원 명단

### 본부동창회 부회장

최민석 최재권

### 본부동창회 이사

강수경 전기환 오거돈 정익주 송원경

### 고문

박상기 이문수 이재홍 이영훈 김병수 장 호 이승현 성운수 임경범 전기환

### 지역고문

여환부(마산·창원지역)

### 신성도(울산지역)

### 회장

오거돈

### 수석부회장

강수경

### 부회장

서덕수 이재화

### 협의부회장

강창수 김한규 송재영 안채식 윤승근 이재호 전우성 정영천 최수명 이강남

### 이사

강민우 강순석 강영도 권영순 권용호 권재진 김경복 김기현 김동우 김부곤 김원달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지호 김현일 김항세 민한식 박명문 박봉현 박성열 박순양 박자민 박재선 배영일 배 일 변성인 성경근 손원조 송재식 송태형 신금봉 신남석 여환부 오익희

옥영철 우종득 윤상철 이세형 이익규 이인백 이일상 이재택 이종하 이혁 전광수 정익주 조호제 최금구 최낙환 최정림 최재봉 최현두 최희춘 한수민 한인환 허영도 황동규 황영실

### 감사

변창섭 임경범

### 총무

조현영 권오균

제 4 회

金敎學=7월 22일 별세

제 8 회

崔東禧=경기 용인시 상현동 859 만현마을 1단지 롯데아파트 109동 1903호, 031-264-4259, 019-281-4255
金榮喆=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9동 1302호, 02-2203-5143

제 9 회

尹亨遠=(자택이사)서울 유성구 노은동 520-1 새미래아파트 808동 1201호, 042-476-5335, 011-9405-4725
朴在允=국민대 교수, 8월 30일 올림픽아호텔에서 정년기념논문 봉정식 가집 (거행)

제 10 회

朴野原=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53-1 주공아파트 106동 304호, 051-893-2610, 016-874-8898
李慶道=부산 해운대구 좌동 LG아파트 114동 305호, 051-704-2660
薛鍾寬=부산 동래구 명륜2동 8-79, 051-554-2561
孫永紹=경남 밀양시 교동 635, 추하시습농장, 055-355-3933
陳 剛=(자택이사)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3차아파트 3동 504호, 02-579-7768
河奉洙=(자택이사)경기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쌍용아파트 314동 1201호, 031-285-0403
金棟坤=대신건기산업(주) 부사장 겸 영업본부장, 02-2298-0860
崔大成=대전지역동창회 회장 역임, 8월 17일 숙환으로 별세

제 11 회

玄正春=7월 12일 초당서예연구실 개원, 051-751-5686
崔永泰=7월 5일 경인운하(주) 감사 부임, 02-765-2772~3, 011-837-3300
池鉉浩=7월 21일 지병으로 별세
洪起煥=(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1동 현대홈타운 210동 1102호, 051-503-3490
黃潤浩=(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79 거제2차 현대홈타

운 202동 503호, 051-504-3515, 011-837-7678
劉洪鍾=BNG스틸 회장,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한국대표선수단 단장 발탁

제 12 회

동기회 졸업 44주년 기념행사를 이사회(부산, 서울) 결의에 따라 9월 28~29일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개별 통지하며 참가하실 분은 동기로 연락바랍니다 (단 서울·경기지역은 서울 동기로 연락 바람).

姜周介=7월 9일 지병으로 별세, 괴정 범일병원
李鍾文=7월 1일 지병으로 별세, 울산 동강병원
權 翼=부산 북구 금곡동 1436(2/3), 051-332-2934
金斗植=(자택이사)부산 수영구 광안1동 120-90 서호빌라 901호, 051-754-1341
金準鐵=협성검정(주) 대표이사, 051-463-6551
朴鍾鼎=부산 수영구 망미동 880 한신아파트 103동 801호, 051-757-6886
嚴泰燮=동아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051-200-7200
張東錫=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051-620-6414
崔炳俊=울산 동기회장, 7월 17일 오복가든에서 열린 율례회때 수고가 많았습니다
許垠道=7월 12일 일시 귀국하고 동기회 방문
金判洙=8월 11일 모친 별세, 019-351-4159

제 13 회

朴斗萬=6월 2일 범일동 제일생명빌딩 제일웨딩홀에서 딸 신영양 결혼
朴弘一=6월 20일 부친 별세
姜貴東=6월 30일 연산동 목화에 식당에서 장남 동수군 결혼
金永吉=7월 14일 모친 별세(침례

어디서 무엇을

병원)
金信夫=8월 6일 모친 별세(효도병원)
金允洪=8월 6일 별세(구 한미병원)
盧日瑢=8월 25일 모친 별세(창우너 파티마병원)
李相澤=재경동창회 회장, 효산의료재단 이사장, 031-469-0151, 부인 황영희 안양병원장이 안양을 빛낸 여성으로 뽑힘
李海宗=8월 26일 모친 별세,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16동108호, 02-418-7898, 017-283-7898

제 14 회

辛一秀=한양대 인문과학대학장, 02-2290-0720
曹圭香=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8월 1일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 취임(9월 27일 취임 예정)
李桓均=7월 1일 세종대학교 전문경영대학원 원장에 취임

제 15 회

金廉垣=8월 9일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으로 영전, 051-643-9960, (자택)051-505-2202
金昇一=(전화번호변경)죽마고우, 051-516-1519, (자택)051-516-1505, 016-9302-8679
千信一=(주)세종 회장, 8월 27일 서울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대한레슬링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재추대

제 16 회

姜尙權=3월 12일 모친 별세
李鍾喆=부산시의원, 3월 27일 MBC시사포커스에 출연, 부산시 수돗물·식수원대책 토론회 참석
李善揆=(주)SK 부사장으로 승진, 052-270-2016
姜軫中=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행정실장, 4월 14일 장녀 소영양 결혼
金正直=경도상사 대표, 4월 20일 장남 도형군 결혼
沈冕燮=(주)GS종합건설(양산

金忠吉=4월 21일 차남 형보군 결혼, 결혼턱으로 5월 정기바둑대회에서 저녁회식 제공
鄭祐光=하동우체국장, 4월 28일 장남 창희군 결혼
張肯相=시원술불바베큐(치킨&세계맥주전문점) 해운대점 개업, 051-747-8668, 4월 21일 용마기별남시대회에서 녹조 준우승차지
曹吉宇=부산시의회 부의장, 5월 18일 장녀 영실양 결혼
李滿夫=5월 18일 장녀 정주양 결혼
田鍾植=보해양조(주) 부산경남지점장으로 취임, 양산 055-381-9871, 5월 30일 동기회사무실에 앞새주 2박스 매취순 1박스 유자원 캔 2박스 회사
李東俊=4월 18일 뉴욕에서 간암으로 별세
金政均=호주사업정리하고 귀국, 6월 1일 장남 현수군 결혼, 한이헌 동기 상견례시 결혼턱 겸해 산내가에서 갈비점심제공
玄勝夫=일본어회화(왕초보도 가능한)책 출판, 011-839-1662
孫石植=한이헌동기 격려차 하부시 동기회사무실에 들려 저녁회식제공
權福述=명문약국 대표, 6월 8일 한이헌동기 돕기 결속을 겸해 6월 정기바둑대회시 오복식당에서 LA갈비 저녁회식 제공
林 實=코리아액트(항공권·무역수출입) 대표로 취임, 부산 수영구 남천동 11-16 한주빌딩 4층, 051-621-7585
余聖國=부산사무기(O/A)상사 대표, 051-469-1878, (자택)부산 남구 용당동 564 한신아파트 103동 1105호
尹永植=7월 4일 동기회방문 중 앙식당에서 회식 제공
崔鉉佑=7월 3일 모친 별세, 동기회사무실에 음료수 3박스 기증
宋圭政=부산시체조협회 회장 취임, 7월 25일 흑송외식집에서 조길우 이종철 시의원 당선 축하연을 고문단 초청하여 제공
徐孝浩=7월 29일 모친 별세, 051-754-9315
沈冕燮=(주)GS종합건설(양산

055-383-0580) 부회장 취임
朴文奎=천하제일중국등축제 기획사로 활약, 입장권 200매를 동기회에 제공
金英夫=부산의대 미생물과 교수, 의학박사, 일본 교토대 교환교수 마치고 귀국
裴長洙=7월 29일 별세

제 17 회

朴勇煥=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건축디자인대학원 원장으로, 02-2290-0305
金基道=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2002 한국방송대상(총 출품작 개인 및 작품상 40개 부문 약 300여편) 심사위원으로 위촉, 8월 5~10일동안 심사에 들어감, 결과는 9월 3일 방송의 날 발표

제 18 회

朴東午=모동중학교 교감으로 승진, 051-303-3922
裴世元=충렬고등학교 교감, 051-531-4704
朴省鐵=9월 1일 장남 결혼, 051-581-3345
金萬根=8월 30일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세황전자(주) 이전 개업, 055-251-9713
黃光健=황소아과 원장, 051-254-9739
黃明吉=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아파트 102동 301호, 051-701-8393
金炳洙=부산시 해운대구 대우마리아아파트 107동 602호, 017-279-7453
崔寬哲=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선경아파트 105동 1101호, 011-855-8321
千斗甲=유니코상사 대표, 051-319-3931
黃大淵=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가락타운 101동 1701호, 017-552-8838
許永太=허영태의원 원장, 051-644-9603
崔成浩=대한화학 대표, 051-645-3367
曹正甲=덕정상사 대표, 051-819-3981
朴相郁=부산대 화공과 교수, 051-510-2393

<7면에 계속>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 어디서 무엇을

<6면에서 계속>

梁玎滿 = 미라보호텔 대표, 051-866-7400  
 成時濟 = 12월 1일 차남 결혼, 051-501-7340  
 孫燦奎 = 동서약국 대표, 051-522-6318  
 金俊吉 = 한양공업 대표, 051-319-0500  
 金正來 = 부산정보고 부장교사, 051-853-0951

## 제 21 회

李載和 = 화영아동화 대표, (자택이사)부산 남구 대연동 255 장백장미타워 102동 2310호, 017-558-7818  
 尹承根 = 신생화원, (자택이사)부산 북구 화명동 2290 코롱하늘채 1차 102동 1204호, 051-364-5584, 017-595-9125  
 李仁栢 = 범양상선(주) 서울 본사 해사고문, 02-316-5019, 011-232-8492  
 許昌秀 = LG건설(주) 회장, 7월 29일 부친 별세  
 陸泰洙 = 7월 22일 심장마비로 별세  
 曹相浩 = (주)삼원 캐스텍 상무, (자택이사)경남 창원시 소담동 125-1 금강그린맨션 502호, 011-852-0626  
 金榮哲 = (사)경제문화연구소 연구위원, 019-652-1911  
 鄭翼株 = (주)일산 부사장, 철담산업훈장 수상(제26회 한국경영생산성 대상), 051-301-0303, 019-550-8308  
 金星煥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7월 7일 차남 결혼, 011-885-9995  
 裴英日 = 유림냉장 대표, 7월 4일 부친 별세, 011-591-0748  
 閔韓植 = 온라인게임 개발, www.big2site.com 운영중, 2B1M 대표, 011-593-0924  
 成相哲 =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에 취임

## 제 23 회

金東沃 = 인제대 경영학과 교수, (자택)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2동 503호, 051-256-2513  
 金宗圭 = 변호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9-4 협성법조빌딩 202

호, 법무법인 우리들, 051-506-7444  
 金泰容 =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51-626-6550, (자택)부산 수영구 수영동 현대아파트 110동 1002호  
 朴文會 = (주)아인 인터내셔널 대표, 051-257-2115  
 朴守甲 = 부산공인노무사 소장, 동기획 회장, 051-465-4141, (자택)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27동 1002호  
 朴宰完 = 국제통운(주)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팀 이사, 051-630-5630, (자택)부산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101동 2202호  
 朴在浩 = 동의공업대학 전자과 교수, 051-860-3195, (자택)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양정현대아파트 204동 901호  
 安成敏 = 흑생맥주 전문점, 블랙타운 온천점, 부산 금정구 부곡동 895-18, 051-518-7232  
 吳世仁 = 사직2동 동장, 051-550-4103  
 俞鎮武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 051-644-0071~6  
 尹淳鉉 = 부산대학교 공학대학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051-510-2314  
 李德男 = 동부건설(주) 물류부문 부산지점장/상무이사, 부산 남구 감만동 254-16, 061-630-3601  
 李秀白 = 동래 현대병원 원장, 051-553-6161  
 全映朝 = 남일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부산 중구 중앙동6가 72 동방빌딩 301호, 051-463-8833 (자택)부산 해운대구 우1동 롯데아파트 8동 801호  
 鄭相建 = 정상건소아과의원 원장, 부산 사하구 당리동 325-18, 051-202-1363  
 崔大日 = 성광물류(주) 상무이사, 051-465-7885,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8-5 태영빌딩 402호  
 河鍾基 = 법무사, 051-501-7422,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9-4 협성법조빌딩 1003호  
 韓進洙 = 동아일보 영남본부장, 051-464-7870, 부산 중구 중앙동4가 53-11  
 許 渡 = 영도구청 사회산업국 국

장, 051-413-6801, (자택)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제마미아파트 101동 1105호  
 洪德杓 = 성전사(종합통신자재) 대표, (화장이전)부산 동구 좌천3동 68-40(구 불보자동차천시장), 051-645-3535  
 辛東圭 =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전  
 許演旭 = 육군준장,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남자선수 감독 발탁  
 李文相 = (주)통영물산 대표이사(사무실 화장이전)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84-5, 02-403-2973~4 팩스 02-403-2979, e-mail : tyms33@korea.com 홈페이지 http://www.toyongbada.co.kr

## 제 24 회

金聲得 = 울산공대 토목공학과 교수, 052-259-2257  
 金憲兌 =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영업총괄상무, 052-230-7020  
 宋淳哲 = (주)남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051-469-6734  
 尹址鉉 = SCN 상무, 052-265-5889  
 李錫宇 = 현대중공업 플랜트 사업부, W.SENO PM 부장, 052-230-5497  
 鄭明根 = 문경에서 정명근외과, 054-555-6772  
 河成基 = S-oil(주) 상무/제2공장 공장장, 052-231-2701  
 金仁久 = 원자력발전소 고리본부 행정지원실 전자통신부 부장, 051-726-2390  
 朴聖杓 = 부산지방 항공청장으로 전보  
 孫鑄鎬 = 동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재무처장), 동아대 경영대학에서 열린 2002년 한국전산회계 학회 하계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  
 李炅潤 = 7월 17일 간암으로 투병 중 별세

## 제 25 회

崔在煥 = 정북원회계사무소 사무장, 7월 29일 부친 별세, 051-

244-8848  
 金澈洙 = 경남 창원군 영산면 서리 142-1, 055-536-0037  
 韓榮根 = 기업은행 인사부장으로 발령 서울 전근  
 鄭鎮洙 = 8월 19일 별세  
 陳翼喆 =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으로 전보  
 朴仁國 =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 02-770-0059, (자택)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26동 1102호, 02-409-2510

## 제 26 회

權海國 = 8월 5일 1항사 호주 출발  
 崔義壽 = (주)진평통산, 051-301-8595, 019-504-8595  
 朴相浩 = 2층에 부인 소아과 개업, 051-266-8020  
 金泰圭 = 우리법무사합동사무소, 부인 개업, 해운대 신도시 신원상설할인점, 051-746-9777  
 鄭榮倫 = (주)제일그린 대표 겸 경상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 055-533-4762, 019-616-5945  
 禹鍾德 = 삼현여고, 055-752-5410  
 嚴洪爔 = 경상대학교 불어과 교수, 055-751-5857, 011-584-5857  
 金興式 = 진주 제일병원 신경외과, 055-756-7173, 017-501-9904  
 金彩英 = 변호사, 055-759-0770, 017-595-6756  
 최대응 = 7월 15일 모친 별세

## 제 27 회

李長燮 = 현대증권 울산본부장, 011-380-0825  
 朴慶孝 =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8월 28일 장모 별세  
 崔龍一 = 동양증권, 8월 24일 부친 별세  
 趙英逸 = (공장이전)CGS, 경남 양산, 055-362-9303~4, 017-589-5501  
 具舜祥 = (이전개원)연세성형외과, 울산시 남구 달동 1367-8 제일빌딩 6층(현대백화점 맞은편), 052-273-2277, 052-246-0707, 011-9514-9511, www.yesps.com  
 趙峯寬 = 6월 28일 모친 별세

安鍾澤 = 대전고검 검사  
 李永洙 = 한양대학교 치과학교실의 주임교수 및 진료과장, e-mail: leeys@hanyang.ac.kr  
 權明保 = 국제신문 편집국장

## 제 28 회

金大植 = (주)헤세테크놀러지, 02-545-8018, 017-257-4680, e-mail: kimds@htc.kaist.ac.kr, 홈페이지 www.hesedtech.com  
 李昌舜 = 선문대학교 교수, 041-530-2346, (자택)041-900-9665  
 林在德 = (주)고려제강 유산공장, 055-389-1400  
 鄭仁植 = 부산화랑협회 감사로 선출, 9월 3일부터 5일간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부산 아사안계인 개회 기념 국제미술 전시회 개최 예정, 051-248-9090  
 安 豊 = 28 동기회보 원고 기다립니다, 051-464-6626  
 梁棟旭 = 부산 중앙고등학교 국어 교사, (자택)051-754-8414  
 尹一熹 = 경북대 사범대학 교수, 053-950-5922  
 金仁鎬 = 고양지청장  
 玉俊原 = 서울고검 검사  
 李春盛 = 서울 동부지청 형사5부장 검사  
 金甫相 = 화훼자재전문 off/on line 운영, 02-507-2582, e-mail: samilfloral@korea.com 홈페이지 http://www.decorist.co.kr

## 제 29 회

金鍾珍 = (주)라셀르 대표이사, 02-2252-2456, (자택이사)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760-7 현대트라우아파트 402호, 02-558-2903, e-mail: lassele-kim@hanmail.net  
 尹清龍 = mega-survey, (62)-(21)-4306215, 자카르타, (자택)(62)-(21)-7655589, e-mail: jkcry@hanmail.net.id  
 金石台 = 세일종합기술공사, 041-556-4411, (자택)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3 성원아파트 104동 2204호, 02-432-3650, e-mail: kst529@hanmail.net  
 李代根 = 7월 15일 지병으로 별세  
 玄桂星 = Italian Express, 메가마트 남천점 2층, 051-626-6333, 019-553-5351  
 鄭曦容 = 새롬메디칼약국, 부천시 상동 544-11 새롬프라자 113호, 032-324-3412, 017-211-7838

## 제 30 회

李海正 =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사무실을 이전, One Parker Plaza 400 Kelby St, 10th FL, Fort Lee, NJ 07024, TEL)201-363-8288 FAX)201-363-8395 HP)917-533-0229  
 高榮俊 = LG전자 전문위원(상무), 8월 24일 부인 별세, 019-537-5872  
 金世一 = 8월 14일 부친 별세, 051-327-1044, 018-224-1044  
 朴東圭 = 8월 7일 모친 별세, 011-221-3862  
 金在洙 = 마산창원지역 동기회 총무, 7월 25일 모친 별세, 011-588-3155  
 金聲俊 = 보건환경연구원, 7월 15

## 제 31 회

일 형님 별세, 017-540-9623  
 李浚星 = 7월 11일 부친 별세, 011-9132-5252  
 全澤滿 = 7월 10일 부친 별세, 016-554-0077  
 金海均 = (개원)강남연세홍부외과, 02-568-4418  
 慎玟培 = (근무지 이전)울산 태화병원 정형외과, 052-950-7500, 011-580-8364  
 金成福 = (근무지 이전)부산중구 의료보험조합 지역징수팀,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우체국빌딩 10층, 051-442-4394, 011-9346-8863  
 李在峰 = 상표 GoodTime, 나라통상, 경기도 하남시 항동 228-9, 031-793-2509, 팩스 031-793-6509, 011-765-0306

## 제 31 회

金大軾 = 정통일식 동경구락부 잔실점 개점, 02-423-8053~4, 동경구부락 강서점 02-3663-8663, 016-619-2262, e-mail: dskim2262@hananet.net

## 제 33 회

朴宗運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수산교육과 교수, 051-620-6162, 011-207-0854, pjun9017@pknu.ac.kr

## 제 34 회

洪承喆 = 목사 위임예식, 9월 8일 동광교회 예배당에서 목사 위임,

## 제 38 회

옥정원 = 8월 20일 부친 별세, 011-289-3842

## 제 39 회

김성완 = 동의의료원 정형외과 주임과장, 051-850-8735  
 안승진 = 9월 13일 오후 6시30분 부산호텔에서 결혼  
 김해성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아산차량생기팀 대리, 041-530-5823, (자택)041-579-1992, e-mail: khspony95@hyundai-motor.com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7-5, 교회 02-547-4196 목사관 02-562-0691

## 제 37 회

박웅진 = (개원)선한한의원, 부산 해운대구 좌동 주공3차 락희상가 1층 101호, 051-702-1075, 011-9422-9691  
 김광국 = (개업)KTF선불요금사무실, 051-467-4016  
 양순남 = (개업)KTF선불요금사무실, 051-467-4016  
 석영태 = 8월 7일 모친 별세  
 장덕조 = 아주대 법학과 교수, 보협법의 쟁점 책 출간  
 전인수 = 9월 7일 조모 별세

## 제 30 회

李海正 =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사무실을 이전, One Parker Plaza 400 Kelby St, 10th FL, Fort Lee, NJ 07024, TEL)201-363-8288 FAX)201-363-8395 HP)917-533-0229  
 高榮俊 = LG전자 전문위원(상무), 8월 24일 부인 별세, 019-537-5872  
 金世一 = 8월 14일 부친 별세, 051-327-1044, 018-224-1044  
 朴東圭 = 8월 7일 모친 별세, 011-221-3862  
 金在洙 = 마산창원지역 동기회 총무, 7월 25일 모친 별세, 011-588-3155  
 金聲俊 = 보건환경연구원, 7월 15

△학계 —————  
 조규항(14회) = 방송통신대 총장  
 이환균(14회) = 세종대 전문경영대학원장  
 신일수(14회) = 한양대 인문과학대학장  
 박용환(17회) = 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장  
 손성호(24회) = 동아대 교수  
 한국전산회계학회 회장

△관계 —————  
 김엽훈(15회) =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  
 박성표(24회) = 부산지방항공청장

**각계 영진 동문**  
**“축하합니다”**

진익철(25회)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장  
 박인국(25회) =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  
 △의약계 —————  
 이상택(13회 · 재경동창회장 · 효산의료재단 이사장) = 부인

황영희 안양병원장이 ‘안양을 빛낸 여성’으로 뽑힘  
 성상철(21회) = 분당 서울대병원장 선임

△체육계 —————  
 천신일(15회) =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재선.

△검찰청 —————  
 안종택(27회) = 대전고검 검사  
 김인호(28회) = 고양지청장  
 옥준원(28회) = 서울고검 검사  
 이춘성(28회) = 서울 동부지청 형사5부장 검사.



**건강수면 위한 10계명... “실천해 보세요”**

- ① 낮잠은 밤잠을 못 자게 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② 적절한 정신활동과 육체운동은 정신과 육체의 평형을 가져와 밤잠을 촉진한다.
- ③ 잠은 조건반사적으로 오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피로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 ④ 수분 섭취가 많으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므로 저녁식사 후에는 음료수나 물을 멀리 한다.
- ⑤ 오후에는 커피와 기타 카페인 음료는 멀리 한다.
- ⑥ 침실에는 소음이 없어야 하고 조명을 끄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나 이부자리는 개인의 기호에 맞추도록 한다.
- ⑦ 잠자리 전에 따뜻한 물(40도 이하)로 약 10분간 목욕을 하면 피로가 회복되고 말초순환이 좋아지며 밤 오줌양이 감소되어 잠을 잘 오게 한다. 그러나 물 온도가 너무 높으면 흥분되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⑧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잠자리에 누워서 책을 읽거나 잡생각을 하지 말고 습관이 든 자세로 조용히 잠을 청하도록 한다.
- ⑨ 숙이 쓰린 사람은 미리 우유를 한 컵 마셔 두는 것이 좋다.
- ⑩ 기타 질병으로 몸이 아프거나 허약해서 잠을 자지 못하면 원인 치료를 하되 부득이 수면제나 진정제를 쓸 경우에는 안전한 것으로 습관성이 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노인은 배설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장기 복용에 따른 중독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수확의 계절은 다시 우리 곁에... 벌써 가을이 다가와 오곡백과가 재밌을 내고 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은 우리를 희망과 기대속에 살게 한다. 그러나 태풍 '루사'가 몰아닥친 산하에는 아직도 상흔이 아물지 않아 구호의 손길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

**회보 광고 협찬 안내**

동문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 크기 · 금액  
 하단 전체(8.2cm × 25cm) : 400,000원  
 하단 1/2(8.2cm × 12cm) : 200,000원  
 하단 1/4(8.2cm × 6cm) : 100,000원
- 내 용  
 업체소개,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명(사진포함)  
 연락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경남중고동창회 (051)245-7551~2

**서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과 같은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희망찬 세상을 위해 서면 GOLF는 늘 고객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GOLF · 콘도 · 헬스 회원권 매매**

아시아드, 에이원C.C 회원권분양주관사  
 GOLF SET 도소매 중고채 고가매매  
**서면GOLF**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4-13(서면 공작창터널입구)  
 전화: (051)803-0654~5, 804-1811, 805-0707  
 807-0707, 817-0606~8, 819-0606, 819-0707  
 080-201-7777, FAX: 804-1810  
 H P: 011-854-0707 대표 여성 열(17회)  
 http://www.smgolf.net  
 E-mail: seomyengolf@hanmail.net  
**충무GOLF** : 서구 충무동1가 10번지(충무동교차로 지하철입구)  
 여성근(24회)  
 전화: (051)241-4344~5, 254-0707, FAX: 241-6643